

이정후, 이틀 연속 멀티히트 날렸다

5타수 2안타...3경기 연속 안타로 시즌 타율 0.255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에 3-5 역전패...4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6)가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날렸다. 이정후는 10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

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증견수 겸 1번타자

로 선발출전,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이정후는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때려내는 등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날려 타격감을 조율했다. 시즌 타율은 0.255로 높아졌고, 출루율 역시 0.315로 상승했다.

1회말 3루수 팻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1-2로 뒤진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워싱턴 선발 호안 아돈을 상대로 투수 팻볼로 아웃했다.

이정후는 1-3으로 뒤진 5회 워싱턴 두 번째 좌완투수 로버트 가르시아의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공략해 투수 키를 넘기는 중전안타를 만들어냈다. 상대의 좋은 공에 타격폼이 살짝 무너졌지만, 뛰어난 콘택트 능력으로 안타를 생산했다.

하지만 이정후는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에 실패했다.

이정후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상대 투수 카일 피네건의 97마일(156km)짜리 포심패스트볼을 공략, 3루와 유격수 사이를 절묘하게 빠지는 안타를 날렸다.

샌프란시스코는 3-5로 끌려가던 9회 이정후와 윌버 플로레스의 연속 안타, 조지 솔러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후속 타선이 침묵해 고개를 떨궜다.

샌프란시스코는 3-5로 역전패했다. 2연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4승 8패)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하는 영암군민속씨름단

2017년 창단, 뛰어난 실력 등 훈훈한 매력으로 씨름 제2전성기 선도

지나해 영암군민 공문화 거처 존치 결정, 지역민의 씨름단 도약 나서

'영암군' 하면 떠오르는 말은 뭘까. 월출산, 무화과, 한우, 대불국가산업단지... 영암군을 대표하는 이 콘텐츠 목록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단어가 있다.

명절이면 무삼코 리모콘으로 TV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는 이름이다. 하지만 6만 영암군민과 전국 16만 영암군 향우는 이 이름에서 단단한 공감과 뿌듯한 자긍심을 함께 느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다.

1980-90년대 민속씨름은 이만기, 강호동 등 슈퍼스타를 배출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이후 긴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전국의 관심을 받으며 서서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선수들이 씨름 제2의 전성기를 선봉에서 이끌고 있다. 이들은 뛰어난 실력과 재기발랄한 입담 등 훈훈한 매력으로 여느 인기 스포츠 선수 못지않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다. 동시에 영암군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노릇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지역 대표 콘텐츠로 부상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역사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 조선업계에 막대한 불황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그늘을 드리웠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전초기지였던 전남 서부권의 4,000여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국내 마지막 프로씨름단인 현대상호중공업의 현대코끼리씨름단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씨름단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소속 선수들에게는 대회 출전도 여의찮은 암울한 상황이 이어졌다. 모두 어쩔던 시절, 씨름단 선수들의 손을 잡아준 것은 영암군민. 2017년 1월 13일, 영암군은 '대한민국 제1호 민속씨름단'의 이름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창단했다.

새 등지를 마련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선수들은, 영암군민의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다. 그 노력은 전국 씨름판을 뒤집기에 충분했다. 2017년 창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장사 66회, 전국체전 금메달 6회, 단체전 우승 10회, 총 82회 우승의 압도적 성적으로 영암군민의 성원에 보답했다.

■공문화 과정 거치며 영암군민 씨름단으로 발돋움

영암군민은 공문화 과정에서 영암군과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지역과 함께하는 씨름단 운영'의 취지로 5가지 중재도 제시했다. ▲인건비·전지훈련비·운영비·후원금의 체계적 투명한 운영 ▲씨름단 예산·구·도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암군 홍보 스포츠 마케팅 실시 ▲최고 씨름단 육성 및 선수 보호 ▲씨름 꿈나무 육성 선수단 재능기부가 그 내용이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나아가 후원금 모금·집행을 위해서 정식 후원회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씨름단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연대 강화에도 나선다. 전국 민속씨름단 운영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조례 개정, 전용 씨름훈련장 건설 속도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충남 청양군, 윤정수 코치는 인천광역시, 최정만 장사는 경기도 수원시, 최철환 장사는 경북 경주시, 차민수 장사는 부산광역시, 김민재 장사는 전남 장흥군 출신이다.

전용 씨름훈련장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고 씨름단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영암군민이 언제나 씨름단의 훈련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대민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집중투자를 받는 우수선수가 영암군민속씨름단 대표선수로 성장하고, 전국 씨름단의 과열 영입 경쟁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스포츠 사례를 검토해 관련 시스템 정비안을 대한씨름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속씨름단도 영암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영암군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 노력이 대표적 예이다. 씨름단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 출연 등으로 꾸준한 영암군은 알리고,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씨름단 팬을 중심으로 포털 네이버밴드에 공식 서포터즈도 생겼다. 씨름단 선수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기를 더해가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영암군은 여기에 씨름단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굿즈도 개발·판매해 수익도 창출하기로 했다.

■마케팅, 재능기부 등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씨름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우수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영암 초·중·고와 연계해 방과 후 학습 등 학교 체육에 씨름 프로그램을 접목에 나선다. 지역 청소년들의 씨름 관심도를 높이고, 재능있는 학생은 세한대학교 씨름단과 프로선수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양성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씨름단 재능기부' → 청소년 씨름 관심 증대 →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 활약 → 은퇴 후 연수 및 지역 지도자 정착 → 청소년 교육'으로 이어지는 K-씨름 선순환구조를 지역에 구축해 민속 스포츠 진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칭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구상도 마련 중이다. '대한민국 최강'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씨름 품새와 교과 개발, 지도자·선수 육성 등 K-씨름 진흥의 지역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암군도 씨름 아카이브센터와 교육관, 체험관, 전용훈련장 등을 갖춘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지 제공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충남 청양군, 윤정수 코치는 인천광역시, 최정만 장사는 경기도 수원시, 최철환 장사는 경북 경주시, 차민수 장사는 부산광역시, 김민재 장사는 전남 장흥군 출신이다.

씨름단 17명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출신지는 서로 다르지만, 영암에서 땀 흘리고, 영암의 농특산물로 체력을 기르고, 영암을 대표해서 모래판을 평정하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는 월출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천황봉을 오르고, 최선을 다한 대회 뒤에는 다시 영암군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영암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민과 팬들은 좋은 성적에는 함께 기뻐하고, 부상과 부진에는 함께 아파하며 씨름단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스포츠단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해내는 전국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충남 청양군, 윤정수 코치는 인천광역시, 최정만 장사는 경기도 수원시, 최철환 장사는 경북 경주시, 차민수 장사는 부산광역시, 김민재 장사는 전남 장흥군 출신이다.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충남 청양군, 윤정수 코치는 인천광역시, 최정만 장사는 경기도 수원시, 최철환 장사는 경북 경주시, 차민수 장사는 부산광역시, 김민재 장사는 전남 장흥군 출신이다.

광주오픈테니스, 14일 개막...권순우 등 국가대표 총출동

21일까지 8일간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 월드컵투어 등용문...30개국 200여명 방문

권순우, 홍성찬 등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이 광주에 총출동한다.

2024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광주오픈)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광주오픈은 월드컵투어 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인 홍성찬(ATP 단식 201위), 정윤성(ATP 단식 387위), 이재문(ATP 단식 506위), 남지성(ATP 단식 701위), 권순우(ATP 단식 645위), 송민규(ATP 복식 463위) 등 6명이 출전한다.

신산희(ATP 단식 468위), 이덕희(ATP 단식 672위), 장윤석(ATP 단식 876위) 등도 참가한다.

해외 선수로는 출전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맥스 파셀(호주·68위)을 비롯해 덕워스 제임스(호주·109위), 버타넬 오토(핀란드·127위) 등이 참가한다.

지난 대회 단식 결승에서 조던 톰슨(호주)에게 0-2(3-6, 2-6)로 져 준우승에 머문 맥스 파셀은 올해 우승에 재도전한다.

대회는 14-15일 남자 단식 예선전, 15-20일 남자 단식 본선전, 15-19일 남자 복식 본선전으로 치러진다. 단식 49경기·복식 15경기 등 총 64경기가 열린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0일,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1일로 예고됐다.

광주오픈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전이 열

리는 20일에는 권순우 등이 참여하는 국가대표 사인회가 펼쳐진다.

임상모 광주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역도 김수현, 파리 올림픽 여자 81kg급 출전권 획득

김이슬은 김수현에 1kg 차로 밀려 고배

역도 김수현(부산광역시체육회)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김수현은 9일(현지시각) 태국 푸켓에서 열린 국제역도연맹(IWF) 월드컵 여자 81kg급에서 인상 112kg, 용상 144kg, 합계 256kg으로 합계 5위를 기록했다.

이날 순위로 김수현은 파리 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리 올림픽 역도 종목에서는 남자 5개(61kg·73kg·89kg·102kg·102kg 초과급)와 여자 5개(49kg·59kg·71kg·81kg·81kg 초과급)로

총 10개 체급의 경기가 진행된다.

체급별로 12명이 출전하며, 각 국가에선 체급별로 1명만 출전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파리 올림픽 출전 랭킹' 9위를 기록하며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 대회 같은 체급에서 김이슬(인천광역시청)이 인상 115kg, 용상 140kg, 합계 255kg을 들었다.

인상 종목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했으나, 용상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해 합계에서 김수현에 1kg 차로 밀렸다.

한편 81kg 체급 대회 우승은 인상 123kg, 용



상 146kg, 합계 269kg을 든 네이시 다호메스(에콰도르)의 몫이었다.

이어 왕저우위(중국·합계 267kg), 아일린 치카마타나(호주·합계 263kg)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